

광주 수출 마이너스 전환...부진 늪에 빠진 광주·전남

광주·전남 수출 10달 연속 감소세...석유화학·반도체 '저조' 광주 자동차 35.7%·전남 수송장비 6197% 급증 등 수출 견인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10달째 감소세를 면치 못하면서 지역경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인 수출 둔화 속에서도 주력 산업인 자동차가 선전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던 광주도 지난달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전남은 7개월째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하면서 광주·전남이 좀처럼 수출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위기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0% 감소한 40억3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역 수출은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수출액은 46억1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고, 2월에도 13.0% 감소한 47억3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3월에도 3월 11.5% 줄어든 50억5300만 달러로 부진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1~4월까지 누계기준 수출 역시 전년 대비 1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입은 26.6% 감소한 32억7700만 달러, 무역수지는 7억6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

출 감소 못지 않게 수입 역시 대폭 줄면서 무역수지는 흑자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9.7% 감소한 14억29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입은 38.1% 준 5억2700만 달러로 9억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는 전국적인 수출 부진 가운데에서도 1월 2%, 2월 11%, 3월 5.7% 등 전년 대비 수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달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본격적인 수출 침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가전제품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자동차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자동차 등 수송장비 수출은 전년보다 35.7%가

증가한 것과 달리, 반도체(-42.1%)와 가전제품(-1.2%), 기계류(-7.7%), 타이어(0.7%)는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나 급감한 26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23.9% 줄어든 27억5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1억4000만 달러 적자였다.

항공품(-26.8%)과 석유제품(-14.4%), 철강제품(-33.7%) 등 전남의 주력 산업들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 광주와 마찬가지로 수송장비 수출이 6197%나 급증하고 기계류가 284.5% 늘면서 수출을 이끌었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주요 품목의 수출 부진이 이어졌으나, 신차 출시 효과에 따른 세계 판매 증가와 수출단가가 높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선

전 등 자동차 수출이 효과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수송장비) 수출마저 부진을 겪었다면 광주·전남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지역 수출업체의 설명이다.

한편 지역 기업들의 올해 수출 전망은 어둡다.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광주·전남 수출환경 전망'에 따르면 응답기업 131개사 중 37.4%가 올해 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환경을 비판적으로 전망하는 기업 비중이 1년 사이 4.9%포인트 증가했다. 철강제품(36.4%), 금형 및 자동차부품 등 기계류(52.6%), 전기전자(52.9%) 등 지역 주력 산업계의 수출 악화 우려 의견이 우세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생활용품 특템 찬스...최대 60% 할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하1층 행사장에서 오는 18일까지 '생활용품 슈퍼세일'을 진행한다. 광주점은 화장품과 세제, 헤어용품, 바디용품, 섬유유연제 등 다양한 상품을 품목별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행사기간 중 매일 선착순 25명에게 행사장 당일 5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상품권 5000원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동시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K-푸드'로 캐나다 식품 시장 공략 나서

aT, 캐나다 식품박람회 참가 13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 식품박람회(SIAL CANADA 2023)'에 참가해 총 13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캐나다 식품박람회는 북미 시장의 최신 식품 트렌드를 파악하고, 주요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B2B 국제식품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40개국의 160여 식품기업과 유력 수입·유통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aT는 캐나다 식품 시장 공략을 위

해 국내 우수 'K-푸드' 수출업체 12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고 발효식품, 인삼가공품, 가정간편식 등 우수한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잡채' 등 다양한 가정간편식 제품들이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인삼, 콜라겐 젤리 등 면역력 증대와 피부미용에 좋은 건강 기능성 식품도 현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권오영 aT 수출식품부장은 "최근 캐나다에도 K-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한식과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진정한 한국의 맛과 재료를 찾는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캐나다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현지 맞춤형 사업으로 한국의 대표 식품들이 캐나다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북광주농협, 조합원 시설하우스 명패 지원

소속감 높여 생산성 향상 도모

북광주농협은 지난 15일 조합원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조합원 시설하우스 명패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북광주농협 '조합원 시설하우스 명패 지원 사

업'은 시설하우스에 경작자, 경작 주소 등을 기록한 명패를 부착해 소속감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날 시설하우스에 자신의 명패를 달게 된 조합원들은 "시설하우스에 걸려있는 명패를 보니 내 이름을 걸고 생산하는 농산물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

끼게 되고,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은 "명패가 달려있는 시설하우스를 바라보는 조합원 분들의 표정에서 미소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았다"며 "앞으로도 북광주농협은 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수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